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6.10



라오스 _ 신실한 증언에는 핍박이 따른다

새신자에게 세례를 주는 라오스의 통캄 목사(오른쪽)
그는 2024년 7월 23일 순교했다

2024년 7월 23일, 아침 기도와 성경 공부를 끝마칠 무렵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라오스에서 사역하던 동역자 중 한 분인 통캄 목사가 기독교 믿음으로 인해 살해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호 2-6쪽 참조)

바로 며칠 후, 우리 팀원 중 몇 사람이 그의 아내 생다라와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해 라오스로 날아갔습니다. 생다라를 만나자, 깊은 슬픔에 잠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들려주었습니다. 통캄 목사는 살해되기 몇 달 전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에 있어 매우 담대했고 사역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자신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캄 목사 살해 사건은 세부 정황상 사전에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임이 분명했습니다.

통캄 목사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달 후, 우리 팀은 다시 한 번 생다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우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라오스에 있는 그들의 교회는 이제 생다라가 교회를 지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그녀에게 성경을 꺼내와 달라고 부탁했고, 함께 마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은 후, 생다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란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지금 라오스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통캄 목사도 그랬고, 정부 당국과 지역이나 마을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전역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호에 실린 이야기뿐만 아니라,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신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라오스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주세요!



자신이 거두지 못할 추수를 위해 생명을 바치다

여러 차례 경고장을 받고 위협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통캄 필라반 목사는
라오스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대가를 목숨으로 치렀다.

사역. 전도. 박해. 이 단어들은 2001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 처음 핍박을 당하기 전까지, 통캄 필라반(Thongkham Philavanh)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였다. 당시 통캄 필라반은 새신자였는데, 이웃 나라인 태국에서 열린 성경 훈련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그저 기쁨 따름이었다. 또한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성경, 소책자 및 설교가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 등을 보고서도 그 못지 않게 흥분했다. 통캄은 라오스 북부에 있는 고향의 다른 기독교인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이 자료들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지를 그려보았다.

그래서 통캄은 그 자료들로 가방을 가득 채우고 집으로 향했다. 몇 시간 후, 그와 일행들은 라오스 군인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통캄을 비롯한 여덟 명의 젊은이들은 전통 애니미즘 신앙을 지닌 사람들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통캄과 친구들은 3개월 동안 비밀 감옥에 갇혀 자신들의 운명을 가를 소식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통캄이 원래 나눠주고 싶었던 귀한 자료들은 이제 손 안에 없었지만, 그는 그곳에 있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소망을 전할 수 있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통캄을 공산당 관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즉 담대한 다음

세대 기독교인들을 라오스에 세우겠다는 비전을 품은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켰다. 이후 통캄은 20년 넘게 라오스 교회를 섬겼다. 그러나 그 헌신의 대가는 참으로 컸다. 2024년 7월 23일, 두 명의 낯선 사내가 가까이 다가와 그를 총으로 쏘았다. 그렇게 통캄 목사는 42세의 나이로 아내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인생을 바꾸는 헌신

사역을 시작한 이래, 통캄은 수감 시절에 키웠던 전도를 향한 열정을 변함없이 간직해 왔다. 의지할 만한 교통 수단도 없고, 차량이 있다 해도 제대로 된 도로조차 없는 상황에서, 통캄은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거나 새신자를 제자 양육하기 위해 종종 몇 시간씩 걸어서 이동하곤 했다.

통캄과 그의 아내 생다라는 공산당 당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압박을 받았다. 당국은 그들을 반복적으로 심문하며 사역을 중단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부인하라고 위협했다. 그런 와중에 통캄은 지역 교회를 담임하고 다른 사역들을 수행하는 일 외에도, 한 교단의 지역

지도자로 활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통캄과 생다라의 인내는 결실을 맺었다. 성경 학교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던 2008년 당시, 그들이 살던 주에 알려진 교회의 수는 단 세 곳뿐이었으나, 현재는 90곳이 넘으며 그중 상당수는 통캄이 직접 양성한 목회자들이 담임하는 교회이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통캄이 말했다.

통캄 목사는 핍박의 의미를 금세 깨닫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집과 직장, 가족과의 관계 등을 잃게 된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다른 교회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사역하도록 훈련시켰다. 결혼 생활 내내 그와 생다라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 특히 크무족Khmu과 몽족Hmong 기독교인들을 지속적으로 섬겼다. 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구호 물품을 제공하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차원, 그 이상의 사역이었다.

또한 통캄 목사는 박해가 심한 지역 기독교인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그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예상하고, 실제로 핍박이 올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지를 가르쳤다. 많은 참가자들은 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도의 교제, 즉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었다고 느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신앙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을 한 상태였다. 통캄 목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가르치며, 그 형제자매들이 다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사랑으로 회복시켰다.

준비되어, 기꺼이, 두려움 없이

통캄 목사와 그 가정이 사역하는 지역의 교회 성장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면서, 당국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불길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통캄 목사와 긴밀히 협력했던 최전방 사역자는 이렇게 전했다. “라오스 문화에서는 존경과 권력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통캄 목사님의 영향력이 큰 건 분명했어요. 목사님은 부족 간 경계를 넘어 사람들에게 호소를 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바로 이런 지점이 당국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지요.”

생다라에 따르면, 그녀와 통캄은 경찰에게 자주 미행을 당했고, 길 건너편 집에는 경찰 감시 초소까지 있었다.

생다라는 그들의 일반적인 감시 수법 중 하나가 교회에 교인으로 사칭하는 사람을 잠입시켜서 개종에 관심이 있는 척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한 요원들이 자신들의 교회에 출석하면서 통캄의 설교 내용이나 일정을 기록하는 것을 생다라가 목격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한 남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교회에 들어와 음성 및 영상을 녹취하고 있었다. 생다라는 그 남자가 자신들을 미행했고, 여러 행사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고 했다. 그는 나중에 교회에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통캄에게 줄 선물이라고 했지만 생다라 사모는 이를 의심하여 음식을 버렸다. 그녀는 버려진 음식 중 일부를 닭들이 먹었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닭이 전부 죽어 있었다.

그러다 통캄 목사가 살해되기 일주일 전, 그와 생다라는 노골적인 경고를 받았다. 어느 늦은 저녁, 두 사람은 근처 가게에 들렀는데 가게 주인이자 마을 이장이 그들을 따로 불러냈다. 주인은 통캄이 지닌 기독교 지도자로서의 영향력 때문에 경찰이 그를 죽이려 한다고 말해주었다.

생다라에게 이미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던 통캄은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게 허락하신다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일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말지는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4년 7월 23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었다. 생다라는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집에 도착해보니 대문은 열려 있었고, 평소 시끄럽게 짓으며 반겨주던 강아지 세 마리도 조용했다. (가들은 나중에 모두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생다라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통캄 목사는 저녁에 할 집안일들을 처리하러 집 뒤쪽으로 갔다. 두 사람이 보살피던 위탁 아동 중 한 아이가 또 다른 불안한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이 없는 사이, 낯선 남자가 와서 통캄을 찾더라는 것이었다. 아이는 그 남자의 행동이 무례하고 수상쩍었다고 했다.

생다라는 그 방문객에 대해 남편에게 이야기하려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통캄 목사는 마당 안에 무단으로 들어온 검은 옷의 낯선 사내 두 명을 향해 막 돌아서던 참이었다. 생다라가 남편에게 소리칠 겨를도 없이, 그들은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 통캄을 향해 일곱 발이나 쏘았다.

너무도 놀란 생다라는 통캄을 도우려 달려갔다. 사내들은 통캄이 목숨을 구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한 후, 침착하게 마당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쏙살같이 달아나는 소리가 생다라의 귀에 들려왔다.

그 후, 많은 일이 연달아 벌어졌다. 생다라는 도움을 청하러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10대 아들인 맥스Max는 밖으로 뛰쳐나왔다. 맥스는 아버지의 시신을 보았지만, 점점 어두워지는 황혼 탓에 상처는 제대로

(☞ 6페이지에서 계속)



◀ 통캄 목사(맨 오른쪽)는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섬기는 일을 큰 기쁨으로 여겼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집과 생계를 잃은 가정들을 자주 도왔다. 그는 사람들이 농장을 다시 일구도록 도와주곤 했다.

2026년 10월 기도 달력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1	2
				 코모로 체포와 압박에도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도록	수
4	5 대체공휴일	6	7	8	9
 우크라이나 여러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신실한 동역자 빅터 목사를 위해	 멕시코 더 많은 성경이 도착어로 번역되어 시골 지역들에 보급될 수 있도록	 아랍에미리트 믿음 때문에 가족에게 거부와 핍박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모리타니 몇 백 명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성장하도록	 에리트레아 키플루 게브레메스켈처럼 20년 넘게 수감 중인 기독교인들을 위해	이슬
11	12	13	14	15	16
 카타르 큰 위험을 무릅쓰고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나이지리아 난민 수천 명에게 음식과 안식처, 성경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마다가스카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북서부 지역 성도들을 위해	 탄자니아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에서 심각한 억압에 직면한 성도들을 위해	 쿠바 성도들이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을 이겨내도록 (요일 4:4)	이
18	19	20	21	22	23
 레바논 분쟁이 계속되는 위험한 환경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카자흐스탄 사말을 공격했었지만 이후 그녀에게 복음을 듣게 된 오빠 아르만을 위해	 기니 부족 간의 폭력 속에서 교회가 소망과 연합의 등대가 되도록	 베냉 기독교인 방송진행자 아마디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케냐 이슬람 무장 단체의 폭력에 가족을 잃은 이들이 성령의 위로를 받기를	불
25	26	27	28	29	30
 쿠바 더 많은 성경이 전달되고, 더 많은 성경공부 모임이 일어나도록	 이라크 가족에게 살해당하기도하는 개종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잔인하게 공격당한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 훈련받는 목회자들을 위해	 말라위 야오족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받은 소망과 유업과 능력을 깨닫도록	 말레이시아 정부의 규제에도 말레이시아 교회를 통해 복음이 확산되도록	복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RIDAY	SATURDAY
2	3 개천절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빈민가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해	 온두라스 현지의 한 전도자가 살해된 이후 남은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9 한글날	10
 콩고민주공화국 연합민주군 등의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들이 기독교인 핍박을 멈추도록	 모로코 비밀리에 모이는 가정 교회들을 더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16	17
 리비아 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사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성도들을 위해	 튀니지 사역 규제와 괴롭힘에 직면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23	24
 브루나이 공용어 성경 번역이 불법이어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만날 수 있게	 아랍에미리트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기독교인을 찾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30	31
 모리타니 아프리카 다른 지역 선교사들이 모리타니 복음화에 소명을 품도록	 쿠웨이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구타당하거나 의절당한 성도들을 위해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1호 인증



한 번도 성경을 받아본 적 없는 라오스 전역 현지 공동체에 성경 1,600권을 보내주세요!

라오스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매년 약 1만 명의 새신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 라오스인 기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성경도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도자 역시 “마을 전체가 성경을 받을 기회가 오길 기다리는 곳도 아직 많아요”라고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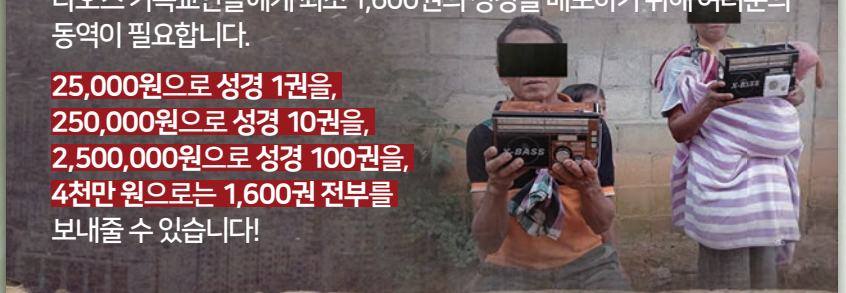
라오스 정부가 성경 배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배포 행사를 하거나 서점을 통해 성경을 전달하는 것은 감시 대상이 되는 위험한 일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현지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요청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직접 한 권씩 전달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3년부터 지금까지 라오스 모든 주에 걸쳐 오디오 성경과 성경책 8,500부를 배포했지만, 현지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성경을 필요로 합니다.

한편, 이러한 성경 배포 사역은 우리 단체의 현지 동역자들에게는 위험한 일입니다. 일부 동역자들은 라오스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증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역자들은 아직도 성경을 가져본 적 없는 이들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곳으로 기꺼이 나아가려 합니다.

라오스 기독교인들에게 최소 1,600권의 성경을 배포하기 위해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25,000원으로 성경 1권을,
250,000원으로 성경 10권을,
2,500,000원으로 성경 100권을,
4천만 원으로는 1,600권 전부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라오스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기 원하시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라오스'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에 '라오스'라고 기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scan me!

로 보지 못했다. 맥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통캄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통캄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동안 생다라는 딸 파Fah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해주었다. 파는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현지 기독교인들과 동역자들은 이 가정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지만 도움을 주러 나서는 동안 자신들도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병원에 모인 사람들 모두 사진에 찍히고 심문을 받았다. 경찰은 이렇게 통캄 목사의 기독교인 형제자매들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던 한 목회자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고통 너머를 바라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이 예전보다는 누그러들었지만, 생다라와 13살의 파, 14세의 맥스에게 그 일은 여전히 큰 고통이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전 세계 성도들의 도움으로 이 가정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주했고, 애정을 담아 통캄 목사를 “아빠”라 부르던 위탁 아동들은 각기 다른 가정에 맡겨졌다.

그러나 살인자들이 막으려 했던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6개월 후, 교회의 확장 공사가 완료되었다. 이 교회에서는 여러 사역 중에서도 라오스 교회들을 위해 새로운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2년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5월, 아버지마저 잃은 생다라는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면서도, 주님께서 통캄에게 맡기셨던 사역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생다라는 교회의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에서 가르치는 일 외에도 통캄 목사가 맡았던 여러 역할을 이어받아 수행 중이다. 각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의 필요에 대해 들어보고, 필요한 자원을 찾을 수 있게 돕고 격려하며,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세미나와 교제 모임을 주최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담한 상실의 아픔을 겪은



▲ 통캄 목사와 생다라 사모(맨 오른쪽)는 집에서 쫓겨나거나 가족에게 배척당한 많은 기독교인을 찾아다녔다. 이 부부는 기독교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동시에 그들을 격려하며 함께 기도해 주었다.

후, 생다라는 이제 그 사역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보살필 때면, 그들 또한 생다라의 아픔을 위로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된다.

생다라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서로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통캄 목사가 그들의 삶과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생다라가 말했다. “통캄 목사가 씨를 뿌린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두고 내가 어찌 돌아서겠습니까?”

- ▶ 통캄 목사가 살해된 지 14개월 후
13세의 파, 14세의 맥스와 함께 있는 생다라.
그녀는 여전히 교회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통캄 목사가 섬기던 교인들의 삶 속에서
그가 남긴 유산을 보는 일이
이 가족에게 큰 격려가 된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된 교사

두앙 마 니 Duang Ma Nee는 라오스의 가난한 시골 지역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 그곳으로 이사 온 지 얼마되지 않아, 그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용기를 얻었다.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자주 성경을 가르쳤다. 마을 주민들도 기도를 받으러 그를 찾아왔고, 치유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마을의 기독교인 수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두앙이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자, 학교 관계자들이 그의 신실한 증언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승진을 대가로 신앙을 부인할 것을 요구했지만, 두앙이 이를 거부하자 그의 급여를 삭감하고 다른 비기독교인 교사들의 급여는 인상해 주었다. 두앙의 상사는 그를 해고하기 위해 음모까지 꾸렸다. 두앙이 업무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에게만 업무 관련 정보를 고의로 숨겼던 것이다.

두앙의 아내 가데 Gade 또한 표적이 되었다. 학교와 마을 관계자들은 그녀가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가데는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 마을 주술사는 그녀에게 신앙을 버리면 병을 고쳐주겠다고 했다. 그녀가 이를 거부하자, 주술사는 가데를 저주하면서 모든 기독교인이 죽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두앙과 가데의 신실한 증언을 이유로, 마을 당국자들은 그 마을의 다른 기독교 가정들을 핍박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거세지는 억압 속에서도, 마을의 많은 주민이 계속해서 복음에 응답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성경 배포,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

라오스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핍박의 대부분은 기독교가 정령이나 영혼들을 노예계 한다고 두려워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마을 당국자들에 의해 자행된다. 라오스 현지 기독교 사역자들은 성경 배포 사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지만, 기꺼이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라오스의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라오스 동역자들이 지난 3년 동안 8,500개 이상의 오디오 성경과 성

경책을 배포했다는 것은 진정 놀라운 사실이다!

2026년 한 해에만 이미 1,700권 이상의 성경이 배포되다!

성경 배포에 참여했던 한 현지 사역자는 이렇게 전했다.

성경 배포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수백 명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을 받은 사람들 대개가 교회에 다니기 어려운 외딴 지역에 살거나,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외딴 지역에서는, 친구와 친척, 이웃들이 방금 받은 오디오 성경을 다같이 모여 함께 듣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복음을 듣고 있는 셈이다!

성경을 전달받은 한 라오스 기독교인은 이런 말을 전해왔다.

가족들 모두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받은 이 성경이 가족 모두에게 진정으로 기쁨과 평화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성경 배포는 특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각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성경을 대규모로 배포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동역자들은 성경 한 권, 한 권을 위해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야 했다. 우리가 성경을 배포한 많은 마을이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서 접근하기조차 어려웠다. 또한 현지 동역자들은 정부 당국자나 마을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감시를 받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라오스 기독교인은 이런 말로 우리를 일깨워 주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핍박받는 형제자매를 기억하며,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가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현장 사역 소식과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히 13장 3절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초청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순교자의 소리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 10월 10일 _ 대전 사무실
- 11월 07일 _ 정릉 사무실
- 11월 14일 _ 대전 사무실
- 11월 28일 _ 부산 사무실



아래 영상과 QR코드를 통해 **라오스 기독교인**에 대해 배워보고 히 13:3 말씀을 실천하세요.

“감옥에서 진정 건디기 힘들었던 것은 고문과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잊혀져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 라오스, 분찬의 말 중에서



라오스 '분찬' 영상



라오스 국가 정보



순교자의 소리_라오스 사역



이 달의 |추천도|서|



『복음』
에릭 폴리·현숙 폴리 지음
20,000원
기독교인이려면,
꼭!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삶』 ①②
에릭 폴리 지음
세트 30,000원
실제적이고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제자훈련 방법을
제시하는 책.

순교자의 영성을 전하는
한국 VOM 도서



많은 VOM 도서들 중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성을 책임질 수 있는 도서들만 선택 및 번역하여 출판하며 수익금은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사역에 사용됩니다.

신실한 증인이 되는 법을 제시하는 책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10,000원
지하교회를 심으라 10,000원
지하교회로 살라 10,000원

한국 기독교인의 영성회복을 위한 책



새 하나님, 새 민족 15,000원
온전한 헌신 1,2 각 10,000원
최초의 한국어 성서와 한국 개신교의 기원 15,000원

존 로스 성경 & 조선어 성경



조선어 스터디 성경 30,000원
조선어 스터디 성경 (창세기/신약) 10,000원
21세기 존 로스 독자판 누가복음전서 10,000원

북한 사역의 이해를 돕는 책



영웅의 여정 10,000원
믿음의 세대들 10,000원

리처드 뎀브란트 목사의 저서 및 전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10,000원
마르크스와 사탄 10,000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0,000원
뎀브란트 15,000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5,000원

전 세계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여행자-복음 위해 사선을 넘은 자들 10,000원
역경의 길 위에서 10,000원
이란 - 희망과의 조우 10,000원

사무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문의: 02-2065-0703(화-토 9:00-5:00)

www.vomkorea.com/donation
후원계좌: 국민 463501-01-243303

도서 구매는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국민은행 104301-04-530516